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 (제1보)

한연희 · 박명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의상 · 텍스타일학부

The Plasticity of Uniform Design (Part I)

Yeon-Hee Han · Meong-Hee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 Konkuk University

(2004. 9. 1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ner meaning and outer form of the uniform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the meaning and form of the uniform in history with a focus on the classification suggested by a Japanese scholar, Okuhira Sitse, and analyzed them by design elements. In the theoretical study, the uniform was divided into formal, working and collective uniform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wear. As results, the plasticity of the uniform was analyzed as the concept involving: authority representing the power and influence within the organization as a inner meaning; differentiation from the rest by expressing the culture and ideology within the organization; cohesiveness among the wearers as members of the specific organization and the binding nature in effect; reliable images to customers due to the appropriate form of dress related to the specific business and controlled self expression; and aesthetics characterizing a given era as a form of aesthetic pursuit. The elements of these inner meanings were translated to the outer form of functional practicality and simplified design, which appeared as the simplified 'suit' in a female uniform in workplaces.

Key words: Uniform, Plasticity, Inner meaning, Outer form; 유니폼, 조형성, 내적의미, 외적형식

I. 서 론

복식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역할, 성격, 태도, 직업, 가치관 등을 전달해주는 무언의 시각언어이자 상징전달의 수단이며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개인의 지위, 계급, 직업과 관계하거나 집단 의식과 연관되는데,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복식이 유니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니폼은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작업복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목적으로도 착용되므로 그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니폼은 상징적 의미와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대상으로 관심

을 끌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는 디자인 만족도와 실태조사 분석위주에 치우쳐 유니폼의 조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니폼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유니폼의 상징적인 의미체계 즉,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을 분석하여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오쿠히라 시즈에(奥平志つ江)의 착용목적에 따른 유니폼 분류를 중심으로 예복, 직업복, 단체복으로 나누었다. 예복은 특수한 예의와 격식을 갖춘 의복으로, 직업복은 직업의 식별과 역할수행을 위한 기능을 갖춘 의복으로, 단체복은 단체상징을 위한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역사적 고찰을 통한 유니폼의 내적 의미와 외

적 형식을 알아보고 복종에 따른 디자인의 요소 별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량 생산된 유니폼의 개념은 일제에 의한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서양 '제복(制服)'이 착용되면서 유니폼개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양 유니폼을 광의의 연구범위로 하였다. 제1보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유니폼의 조형성, 즉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제2보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예로서 한국과 일본의 은행직원 유니폼에 나타난 조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II. 유니폼의 일반적 고찰

1. 유니폼의 개념과 분류

'Uniform'은 라틴어의 unis(하나의)와 forma(형)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의복을 가리킨다(남윤자 외, 1997).

우리나라의 과거역사에서 유니폼의 개념은 일제에 의해 서구 문물이 도입되고 대량 생산방식에 의존하는 통일화된 군복과 학생복이 '제복'으로 입혀지면서 생겨나게 된다. 개화기에는 제복이란 말이 사용되어 오다가 해방 후 영어가 일상어로 혼용되면서 유니폼이라 불리어지게 되었다(이서희, 1989). 이 '제복(制服)'은 '정해진 복장, 관리지배하의 복장, 규제를 받는 복식'을 뜻하며, 이것은 곧 개성보다는 집단적 관리하의 일체성이 강조된, 획일적인 옷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유니폼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다수가 하나의 형태로 통일되게 착용하는 복종으로서, 일반 복식보다 사회적 의미가 더욱 중요시되는 상징적인 복식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내면성은 유니폼이 지닌 내적 의미로 함축되어 나타나며 외적 형태의 측면에서도 관계적인 복식의 기능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오쿠히라 시즈에(奥平志江)(1999)는 유니폼의 착용목적에 따라 유형을 경조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의식용 유니폼과 직업복으로서의 유니폼, 단체복으로서 유니폼으로 구분하였다. 의식용 유니폼은 예복 등을 말하며, 직업복은 직업이 판별되는 군복, 경찰복, 간호원복, 재판관복 등을 뜻한다. 단체복은 그 집단의 주의와 사상을 통일하고 작업과 행동을 규정하는 의복으로, 정치단체나 보이с카우트 복장 등이 대표적이다.

2. 유니폼의 역사

유니폼을 경조사나 예식을 위한 특수상황에 맞게 착용되는 예복,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직업의 판별이 가능한 직업복, 단체조약이나 규약에 의해 통일감과 일체감을 위해 착용되는 단체복으로 분류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1) 예복

서양남성예복의 대부분은 18세기 프랑스의 궁정귀족(宮廷貴族)의 복장형식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특히 영국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원래 예복은 귀족의 사교모임을 위한 격식있는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귀족들의 근엄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학위예복은 졸업식때 학위수여를 위해 착용하는 의례적인 유니폼으로서 중세 초에 학자계급인 성직자의 의복형태를 따랐다. 오늘날 학위예복은 가운, 후드, 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식이 풍부한 학자를 상징하기 위해 사각모 착용한다. 김정색은 서양복식의 역사를 통해 착용자의 위엄과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색상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신비로움과 힘을 상징하였다. 흰색은 거짓이나 어둠이 없는 순결함, 청결함을 상징하므로, 성직자나 신부의 예복에 많이 사용되어왔다(오희선, 김숙희, 2001). 이와같이 예복은 전통성과 격식을 갖춘 형태로서 과거에는 사회계급의 구별과 권위를 상징하며, 오늘날은 특정지위의 권위와 더불어 사교생활의 예의표현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2) 직업복

본 연구에서는 직업복 종류에 따른 역사를 특수직업부문, 서비스복, 사무복, 작업복의 형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특수직업부문

① 군복

오늘과 같은 의복형태의 유니폼은 군인제복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전투시 적군과의 식별을 목적으로 통일된 의복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 시작하였다(손강숙, 1988). 기원전 2세기 로마의 군복을 보면 투구나 갑옷, 방패와 무기 등으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투구와 갑옷에서 상징주의와 상상력이 표현되었다(Russell, 1981). 13세기 중엽 십자군 병사들은 신축성 있는 갑옷 위에 험령한

쉬르코를 입었는데, 여기에는 전장에서 적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장이 장식되어 있었다. 16세기말에 이르러 대포와 소총 등 화기의 발달로 움직임이 편리한 포제전투복이 정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때(1643~1715) 각 연대마다 달랐던 군인복식을 통일시켰고, 이 영향으로 다른 유럽국가들도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이후 군복은 색상과 장식이 화려하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정복, 혹은 예복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김지영, 1997). 군복의 디테일 중 전쟁의 업적을 상징하는 훈장과 계급이나 부대등을 표시하는 견장은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더욱 위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세기 말에 화기의 발달로 었드려서 쓸 수 있는 총이 개발된 이후 각국은 군복에 위장색을 쓰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반을 기점으로 모든 군복은 위장색의 대표적인 색상인 카키색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전투시 수풀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위장무늬(camouflage) 군복이 처음 등장하였다(곽현주, 2000)(사진 1). 군복을 통해 보여지는 기능성과 단순성은 대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기성복의 생산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20세기의 현대 의상의 기본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②경찰복

경찰의 police라는 본격적인 직명이 생긴 것은 프랑스 루이14세(1643~1715) 시대로, 공공질서의 합리적 조직화와 도시의 질서유지가 목적이었다. 1829년 영국에서 제정된 경찰관의 유니폼은 검정색 연미복에 긴 바지, 실크 햇을 착용하는 형태였고, 칼라에는 계급표시를 위한 뱃지를 부착하였다. 1869년 런던 경찰유니폼은 싱글 그레드 코트, 긴 바지에 헬멧을 쓰고 코트 아래는 금단추가 달린 스텐칼라의 상의에 허



<사진 1> camouflage
www.heathcoat.co.uk/military_products.htm

리에는 벨트를 착용하고 부츠를 신었다. 독일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초기에는 군인과 경찰의 유니폼은 동일하였으나 그 후 점차 형태는 동일하더라도 견장이나 모자로 군인과 구별하여 착용하기 시작했다(NUC, 1991).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경찰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권위의 요소가 강조됨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 자긍심과 품위를 갖춘 친절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③ 의료원복

1880년경 의사는 검정 프록코트에 가는 슬랙스, 검정 부츠를 신고 순백의 장식이 달린 셔츠를 안에 입었으며, 진료 중에는 목부터 전신을 감싸는 흰 에이프론을 입었는데 이것이 의사백의(白衣)의 전신이다(NUC, 1991). 의사가운은 의사의 권위와 아울러 환자를 보호하는 과학적이자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한다(Kidwell & Steele, 1989). 현재 의사의 백의는 더블식이나 싱글형의 진료의가 일반적이지만 세탁의 어려움에 의해 일회성의 간단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백색은 의약이나 내과 의사에 많이 적용되고 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술복과 더불어 밝은 녹색이나 청색으로 바뀌고 있으며, 점차 병원이나 의사자신의 기호와 서비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생겨나고 있다.

(2) 서비스 부문

① 백화점 판매원 유니폼

세계최초의 백화점은 1852년 파리의 봉 마르셰(Bon Marche)이며 이후 유럽 대륙과 미국에까지 백화점업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일본백화점의 효시는 1904년 12월 ‘미쓰이’ 포목점이, ‘미쓰코시’ 백화점으로 법인화 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베이버 백과사전, 2002). 초기의 일본 백화점 여점원의 유니폼은 일본 옷(기모노)이었으나, 1924년경부터 양장차림으로 바뀌었다.

昭和10년(1936년) 각 백화점들은 유니폼을 제정하게 되고 수트나, 원피스 형태로 각 백화점마다 달리 입었다. 전쟁 중에는 판매원도 전시복으로 몸빼바지나 바지를 입었다. 종전 후 백화점은 패션성을 반영한 세련된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고객과의 구별을 꾀하고 고객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으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하고자 하였다(NUC, 1991). 최근 백화점 여직원들의 유니폼은 활동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수트형이 선호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스커티

드 슈트형을 입다가 오늘날 팬츠 슈트도 보편화가 되었다. 백화점의 특성과 이미지를 반영하는 판매여사원의 유니폼은 고객과의 차별성과 심미성을 나타내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판매직의 신뢰성도 획득할 수 있다.

② 호텔 유니폼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여행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대식 기업형태의 호텔이 등장하였다. 1850년에 세워진 프랑스의 그랜드 호텔이 유럽의 호화호텔의 효시로 꼽히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편리함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호텔이 등장해, 오늘날까지 호텔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호텔서비스는 매우 다양한데 호텔 등록, 예약을 담당하는 프론트, 짐을 나르는 포터, 안내하는 보이, 객실청소를 담당하는 메이드, 식당의 웨이터, 웨이트리스 등의 직분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유니폼도 다르게 착용된다(NUC, 1991). 이와 같이 호텔은 종업원들에 의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텔의 C.I와 같은 차별화되는 요소와 함께 심미적 요소도 작용하여 세련된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③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

항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항공기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내 서비스이다. 따라서 여승무원의 이미지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이미지와 항공사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여자객실승무원은 1930년 Boeing Air Transport(현재 United Airline)가 미국 국내선에 고용한 간호자격증 소지자 8명의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여객을 돌보고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역할이었다. 당시의 스튜어디스 유니폼은 간호사에서 유래된 흰색가운과 흰색모자를 착용하였다. 이후 전쟁기간에는 밀리터리풍이 잠시 유행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항공사들의 특성을 살린 실용적인 유니폼을 입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이신영, 2002). 여승무원의 유니폼은 공항 내에서 타사와의 구별이 확실해야 하며, 우선 심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회사나 국가의 이미지도 나타나야 한다. 또 착용자의 입장에선 장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함으로 활동의 편리성을 보장함은 물론, 바라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3) 사무복

사무복으로서 클래식한 정장이나 비즈니스 슈트와

같은 준정형화된 유니폼(Quasi uniform)은 조직의 표준화된 드레스코드에 의해 조절된다.

① 일반 사무복

19세기후반부터 제1차세계대전 후까지 기업과 근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새빌로우 슈트(Savile Row suit), 특히 3-piece의 정장과 흰색셔츠(shirts)를 입었으며 그것은 그가 회사원이나 은행원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19세기에 정립된 남성의 테일러드 슈트와 흰색셔츠는 강하고 견고한 이미지의 단순한 형태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의 권위를 나타내었다(이민선, 2001). 활동적이고 사회화된 남성슈트는 여성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1880년대에 영국의 디자이너 레드펀에 의해 고안된 여성슈트는 남성복에서 도입된 것으로 재킷과 블라우스, 스커트를 한 세트로 갖춘 의상이었다(정수현, 2001)(사진 2). 1980년대 초반 미국에는 남성의 파워 슈트가 일상화되면서 직장 여성복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것은 감청색의 테일러드 슈트와 깔끔한 블라우스, 목에 여성적인 스카프를 매는 것으로 이루어진 유니폼으로,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여사와 다른 전문직 여성들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김은희, 2002). 이렇게 남성복의 비즈니스 슈트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따른 여성복식의 기능화, 남성화로 이어져 현재까지 유니폼의 원형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사진 2> 테일러드 슈트
nineteenth century fashion, 1992, p.168

② 은행 여직원복

근대산업을 통한 기업이 출현되면서 은행 규모가 더욱 커졌는데, 20세기 이후 전쟁으로 인한 인력공급 부족으로 은행사무를 위한 여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었다. 복장의 품위를 중시한 일본의 은행에서는 전후

의복부족 시대를 겪으면서 일상복위에 덧옷을 입혀서 직장분위기를 통일하고 신뢰감을 높이려 하였다. 이 덧옷은 신체와 의복보호를 목적으로 길이는 무릎 밑까지였고, 색상은 짙은 감청색이었으며 크기는 험령하게 여유있는 스모크(smoke)형이었다. 이 스모크형 유니폼은 경제력의 발전으로 의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昭和 40년대(1960년)에 접어들어 외관적 형태면에서 수트로 바뀌었다. 수트형태의 유니폼은 “3T” (light, short, tight)를 강조하며 짧은 길이와 튼튼한 소재, 밝은 색상의 유니폼을 선호하고 기업의 얼굴로서 유니폼을 내세웠다. 1963년 최초로 스미도모 은행이 수트형 유니폼을 착용하였으며 이에 수트형 유니폼은 점점 확대되었다(NUC, 1993). 昭和 39년(1964년) 신칸센개통과 도쿄올림픽개최, 昭和 45년(1970년) 오사카의 일본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직장유니폼(company uniform)의 패션화가 도입되면서 유니폼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사진 3). 이 시기에 유니폼은 기업의 경영이념과 주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형태도 상하 분리된 베스트 수트가 일반형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은행의 여직원 유니폼은 초기에 업무를 위한 기능적이고 사무직의 형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고객을 상대로 기업의 이미지와 시대의 유행을 반영함에 따라 서비스의 측면이 강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진 3> 오사카 박람회
日本ユニフォームセンター, 1991, p.16

(4) 작업복

작업복은 작업장 내에서 착용자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하므로 작업에 적합한 기능성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작업복의 가장 단순화되고 기본형인 에이프런은 어느 시기나 작업에 필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입

혀졌다. 13세기 회화를 통한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aperme’, ‘napron’으로 불렸으며 예술가들, 집짓는 사람들, 일반적인 노동자와 요리사인 남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입혀졌고 14세기에 여성에 의해 나타난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와 의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사에 고용된 여성의 드레스 형태에서도 에이프런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신분의 표시로서 엄격함을 보이며 19세기에는 하녀의 의상을 검은색 드레스, 캡, 에이프런으로 제한했다(Ewing, 1975).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에이프런은 더욱 기능적인 작업복으로, 특수한 형태의 보호형 의복으로 변화하였다(Hom & Gurel, 1988).

전쟁 후 작업복은 점차 업무상의 기능뿐만이 아닌 외관상의 미적인 요구도 함께 요구되는데, 일본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모든 기업이 작업복을 지급하게 되었고 작업복에도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요구가 커졌다. 1960년대 일본에서는 노동의 기본동작과 팔의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기능적 작업복이 많이 나왔으며 1970년대에는 진(jean)과 캐주얼화에 따른 요소가 작업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소재도 특수가공 처리된 트리코트, 저지, 데님 등으로 다양화 되었고, 형태도 기계주름을 첨가한 점퍼형 작업복이나 스포츠 캐주얼형 등으로 확대되었다(사진 4). 오늘날에는 난연(難燃)가공, 정전기방지가공, 난유(難油)가공 등 안전과 기능을 첨가한 다양한 작업복 소재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NUC, 1991).



<사진 4> 일본작업복
ALPHA PIER, 1993-1994 F/W, p.125

3) 단체복

단체복은 그 집단의 주의와 사상을 통일하고 작업과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를 지니며 착용자로 하여금 그 집단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단

체복은 주로 우호단체나, 조직, 소속 등을 단체로서 식별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다.

(1) 학생복

교복의 기원은 평상시에 군인복장을 활용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초는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교복은 처음에 재킷이 청색과 적색이었지만, 1820년 조지 3세의 장례식을 계기로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며 길이는 허리까지 오는 짧은 형태였다. 재킷 속에는 베스트를 입고 넓은 흰색 플랫폼 칼라가 달린 셔츠에 재킷과 같은 색의 넥타이를 댔다. 하의는 주로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를 입고, 모자는 검은색 실크 햇(silk hat)을 썼다. 이 교복을 시초로 서양 각국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복을 입어왔다(네이버 백과사전, 2002). 교복은 신분과 소속감·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며 디자인과 색채를 통일하여 입음으로써 착용자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명백히 구분한다.

(2) 스카우트복

보이스카우트는 1907년 영국에서 생겨난 소년단체 조직으로, 창립자인 베이든 포우엘 경(R.S.Baden-Powell)이 전쟁에 종군한 경험으로 규율있는 사회에

필요한 어린 애국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년단을 창설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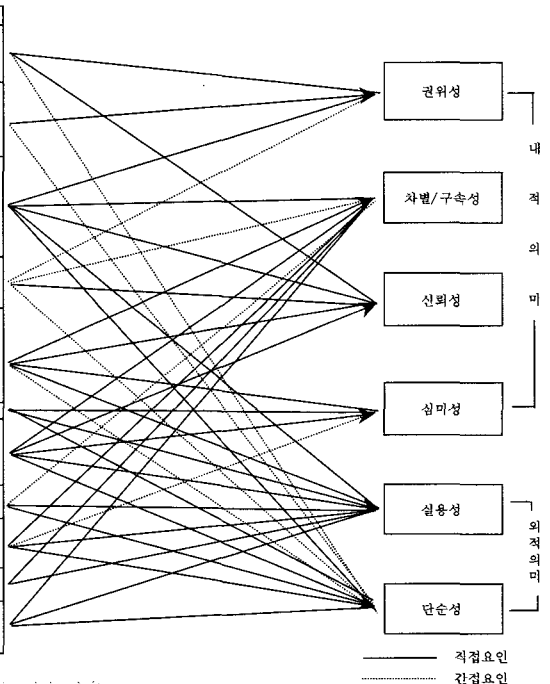
보이스카우트의 초기 단복은 긴소매 셔츠와 카키색의 반바지였고 1910년에 영국에서 결성된 걸스카우트는 회색의 원피스 또는 투피스에 벨트를 착용하고 베레모와 넥커치프를 착용하는 스타일이다. 세계 연맹의 상징적 표시로서 3개의 크로버 꽃잎이 중앙에 부착된다. 이와 같은 휘장을 포함한 유니폼은 단체의 이념과 목적을 나타내며 또한 활동성을 고려한 기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

(3) 운동선수복

각 기업이나 단체,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단들의 유니폼도 단체복에 해당한다.

예로 축구복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축구는 1863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878년경의 유니폼은 셔츠에 무릎아래 길이의 큐롯을 입고 반 부츠로 둥근 모자를 착용했으며 그 후 니코보코를 신게 되었다. 1880년경 오늘날처럼 셔츠, 숏팬츠, 양말에 신발과 같이 단순화된 스타일이 되었다(NUC, 1991). 월드컵대회 참가국들이 유니폼에 로고를 부착한 것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부터이며 이때부터 월드컵 유니폼을 통한 스포츠웨어 업체들의 ‘과학의 전쟁’은

구분		특징	
예복	서양남자예복	3피스의 격식, 형태, 예의의 의미 남성복의 전통성 - 남성수트 검정, 흰색	
	락위예복	형태인자적 가운 위업, 격식, 전통성 표현 사각모 - 장식상징 검정색	
직업복	특수직업복	군복 경찰복	정형화된 형태 - 수트 훈장, 견장 등 계급상징 움직임이 용이 위장색, 위장무늬 - 신체보호(군복) 기능적 소재와 디테일(군복) 신민보호, 분사(경찰복) 전투직업 상징
		의료인복	위생, 청결, 봉사상징 수술복 등 유니폼 전문화
	서비스	백화점 판매원복 항공사 여승무원복 호텔유니폼	이미지 상징(백화점, 항공사, 호텔) 고객만족과 서비스 청결, 단정한 이미지 세련미, 활동적인 수트 역할적에 따른 형태의 다양화(호텔 유니폼)
		사무직	일반사무복
은행 여직원복	은행의 이미지 사무와 서비스의 조화 단정하고 친절한 이미지, 활동성 - 수트		
단체복	작업복	BOX형의 심부엌, 움직임이 용이 신체보호, 내구성에서 우수한 소재 신분상징, 획일성	
	교복	학교 이미지 - 벨트, 로고 활동적인 수트, 내구성이 좋은 소재	
	스카우트복	단체이념 - 상징적 요소 활동성, 단순한 형태	
	운동선수복	국가, 기업의 소속된 이미지 활동성, 신체보호, 쾌적성 특수 기능성 소재와 기능적 스타일	



<그림 1> 유니폼 조형성의 요소

본격화됐다. 최근의 발전된 선수단 유니폼의 경향은 유니폼 전체의 색상과 형태를 국기의 이미지로 통일시키며, 소재면에서도 첨단과학의 요소가 두드러진다. 즉, 원활한 통풍, 체온조절 능력, 가벼운 무게 등의 기능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조선일보”, 2002). 이러한 유니폼의 기능적 측면은 활동성, 신체보호, 쾌적성, 위생청결 등의 유용적인 기능을 말하며 이것은 나아가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단체복은 협의나 조약에 관한 규약으로 착용된다. 또한 복종에 따른 법적인 규정보다는 관례화된 드레스 코드나 점퍼, 베스트와 같은 단품, 혹은 스카프나 장식, 악세사리의 통일성만으로도 조직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유니폼은 조직의 목표와 종류에 따라 그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착용목적에 따른 유니폼 분류를 통해 역사적으로 나타난 조형성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1).

III. 유니폼의 조형성

본 연구에서는 앞장의 역사고찰을 통해 도출한 유니폼의 조형성 요소들을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유니폼의 내적 의미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내적 의미는 유니폼의 상징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광의의 의미를 뜻한다. 즉 소속 집단이나 단체의 이념과 문화를 나타내는 협의의 의미와는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권위성

서구사회의 권위의 이미지는 flugel(1966)에 의하면 틀에 맞춘 옷(form-fitting attire)보다는 틀을 따른 의복(form-following attire)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다. 그 이미지는 소재의 수직적인 연속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일관된 통일감으로 구성된다. 법관들이 착용하는 품이 넉넉한 검정가운은 신체의 특징을 숨기고 견고한 이미지를 요구한다. 학위예복으로 입혀지는 졸업가운도 형이 길고 인체를 숨기며 많은 주름으로 외형적인 크기와 부피를 커 보이게 하기 때문에 형태인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직자복, 법복, 학위예복 등에 쓰이는 검정색은 지속적인 착용자의 위

엄과 권위를 돋보이게 한다. 서양남자에복의 수트 또한 서구사회의 권위적인 남성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착용해야 할 장소와 시간에 따라 그 격식이 엄격하며, 착용방식도 그 화려한 장식적 요소만큼이나 까다롭다. 이와같이 예복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색상과 형태로 인하여 기능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형태의 예복을 통해 권위성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격식이 보여짐을 알 수 있다.

권위성을 나타내는 유니폼은 예복 이외에도 군복, 경찰복 등 정형화된 형태를 통해서 힘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군복과 경찰복은 의복장식의 증가를 통하여 연속되는 계급의 관계를 나타내고 의복의 디테일이 정확하며 전통성과 보수적 성향을 보여준다. 제복에 부착된 훈장은 전쟁에서의 무훈과 업적을 나타내는 상징물 역할을 하면서 상관으로서의 권위감을 보여준다. 견장은 계급이나 부대, 군대의 역사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장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넓고 각진 어깨를 더욱 강조하여 위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김지영, 1997). 이밖에도 정형화된 어깨선과 금단추, 뱃지 등은 권위감을 강조하며 수직적인 명령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사진 5). 의사의 백의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의 상징으로서 또다른 권위를 나타낸다. 의사의 백의는 위생학의 상징으로서 실험실의 가운에서 유래되었고 신뢰감과 전문인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었다. 유니폼의 권위성은 사무복, 비즈니스 수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80년대 파워수트는 유니폼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넓은 어깨와 넉넉한 품의 재킷을 통해 남성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맡은, 강하고 권위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던 것이다(사진 6). 이와 같



<사진 5> 육군예복
www.police.go.kr



<사진 6> 파워수트
icons of FASHION, p.125

이 권위성은 복종에 따라 전통적 형태, 색상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단색(solid color), 직선적인 실루엣을 통한 정형화된 이미지, 상징적 의미의 장식과 디테일 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차별성

차별성은 그 집단의 특성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타 집단과 구별성을 획득하게 되는 대외적인 특성을 뜻한다. 유니폼은 조직에서 비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기대되는 행동과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진 장치이다(Nathan Joseph, 1986). 유니폼은 조직의 일체(Conformation)와 구분(Discrimination)의 이율배반이 뒷받침되어 조직내의 소속이나 단결을 나타내는 반면에 대외적으로 타 조직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조직내의 사회계급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제정된다(장문호, 1979). 군복은 전투시 우방과 적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 착용되었으며 동시에 단체를 상징하기 위한 통일된 제복이다. 이렇듯 유니폼의 착용동기는 신분표식, 질서유지, 타인과의 구별 등이 일반적이다.

NUC(Nipon Uniform Center, 1993)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유니폼을 착용하는 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직원의 식별기능이며 타 은행과의 구별성이다. 이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돈되고 일관된 이미지전달과 더불어 타 은행과의 차별화된 독자적인 이미지 전달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기업의 유니폼은 1980년대 이후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의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업이미지 홍보에 있어 직접적이고 강한 효과를 갖게 된다(김원



<사진 7> 겹프 항공사 유니폼
company uniform, 1998, p.27

준, 1988). 이런 기업이나 단체의 상징성은 관념적인 것에서 오는 기존의 직업이미지와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업의 로고, 색상 등에 의해 표현되는데, 회사의 심볼 마크나 C.I 색상을 반영한 모자, 스카프 등의 소품은 물론, 의복에 전체 혹은 부분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니폼은 호텔근무복, 항공회사의 여승무원복<사진 7>, 은행여직원복, 이벤트 홍보요원복과 같이 업무성격상 서비스의 이미지가 강한 직종의 유니폼으로부터 국가와 팀을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단 유니폼, 스포츠 선수 유니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유니폼은 통일된 형태와 색상의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타 조직과의 구별을 피함은 물론, 소속된 조직이나 기업의 주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열쇠이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구속성

구속성은 일체감이 강조된 유니폼을 착용함에 따른 소속감의 표현, 즉 조직원 개개인의 대내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유니폼은 착용자가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개성을 억누른다.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는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소속감을 통해 충족되며, 유니폼을 착용한 다른 사람들과 동조성을 갖게 되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urlock(1973)은 유니폼 착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동조성이라고 했다.

Baron과 Libert(1971)에 의하면 동조성이란 일반적으로 유행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 큰 단체의 생각이나 행동의 일률성과 관례를 따르려는 고집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Langer(1965)도 유니폼의 착용동기는 착용자의 우수성 과시, 사회계층의 구분, 단체정신형성에 있으며 특수한 집단의 유니폼을 입을으로써 개

인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집단규칙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과 동시에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는 만족감을 주게 되어 업무상의 역할 행동을 자신있게 하도록 이끌며, 조직원이 그 단체에 귀속하고 있다는 감정을 고조시킨다. 이것은 정형화된 유니폼의 사례로 군복과 경찰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체복에서도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그 집단의 일원임을 자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착용자를 하나의 단위 집단으로 결합시키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의지를 고무시킨다. 조직원은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에 헌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유니폼은 그룹내의 조직원을 나타내는 합법적인 증명인 것이다(Rubinstein, 2001). 이와 같이 유니폼은 착용자가 그룹의 규범과 표준에 충실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착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 신뢰성

유니폼은 개인의 차원에서 역할기대나 역할지각의 수단이 되며, 대외적으로 착용자의 직업과 역할에 관한 안정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개인이 유니폼을 착용한다는 것은 소속된 조직이나 집단이 조직원으로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 사람이 조직과 관련된 가치와 기술을 습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업복의 전통적 역할지각과 관련된 예로, 소아과 간호사들은 전형적인 백색 유니폼이 일부 어린 환자들에게 무섭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업무시간에 색깔있는 유니폼이나 일상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일부의 간호사들은 색깔있는 유니폼이나 일상복을 입으면 환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 반면, 일부 간호사들은 백색 유니폼을 착용할 때보다 덜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며 환자의 신뢰감을 덜 고무시키는 것 같다고 느꼈다(Kaiser, 1985). Dress for success의 저자 John Molloy(1978)는 타인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적당한 드레스 모드는 수수한 수트로 지속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예로 단색 문양, 어두운 색상, 쓰리피스의 수트를 입고있는 J.P.Morgan 은행원은 안정성(stabil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전달하는 한편, 법조인들은 핀 스트라이프 패턴이 정직성이나, 곧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며, 엔터테인먼트와 코스메틱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스타일리쉬한 모습, 시각적 소재모티프나 재질감 있는 유니폼을 선택함으로써 차별화된 감각을 내보이고자 노력한다. 이렇듯 기대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의복유형을 통해 대부분의 직업지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직업과 역할에 따르는 신뢰성도 획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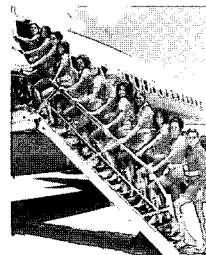
군인이나 경찰관은 정형화된 단정한 제복을 입음으로써 대외적으로 법에 의해 준수되는 강한 규범체계와 역할에 관한 신뢰성을 획득한다. 단정하고 안정된 색상의 수트를 착용한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받는다. 또한 통일된 항공사의 이미지를 반영한 유니폼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는 스튜어디스들의 모습에서 고객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조직원은 각자 직업에 따르는 역할수행과정에서 그 지위에 수반되는 규정이나 적합한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특히 근무복을 통해 고객에게 자신들의 업무역할능력과 서비스정신을 표현함으로써 신뢰성을 획득한다.

5) 심미성

유니폼은 우선적으로 단체나 조직의 복식표준과 개인들의 자기표현요구와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연결상태로서 심미성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에서는 유니폼의 미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두고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그 시대의 패션을 반영한 특색있는 의복스타일, 색상 등에 관심을 두고 유니폼을 선정함을 통해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만족감을 갖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이경희, 1991). 유니폼의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집단미를 창출하는 것이 효과가 크며, 시대적인 감각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항공사 여승무원복의 경우 전쟁기간 중에는 밀리



<사진 8> Southwest Airline 여승무원복 company uniform, 1998, p.69

터리풍의 유니폼이 착용되기도 했고, 1970년대 초반에는 미니멀한 요소가 유니폼에도 반영되어 미니스커트와 숏 팬츠가 나타나기도 했다(사진 8).

최근 유니폼의 경향은 발전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 기업의 이미지, 착용자의 개성과 감성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특히 유니폼을 선정하는 주도권이 기업의 특정관리자에서 여직원 대표나 노동조합원 등의 착용자로 옮겨감에 따라 점차 유니폼에도 패션성을 강조하는 착용자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2. 유니폼의 외적 형식

유니폼은 최소한의 장식과 실용성을 근거로 단순한 디자인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디자인의 단순성은 작업의 효율성, 기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실용적 기능성

직업복은 각 단체의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의복에서 오는 부담감과 불편함을 덜기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입혀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회사 생산공장의 작업복을 비롯한 군복, 스포츠 클럽의 운동복 등이 그 예이다.

군복은 의복의 실용적 측면 즉, 기능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한 유니폼이다. 각 국가들은 군복의 소재와 스타일, 품질, 성능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으며 이에 따라 최첨단의 기능성 섬유소재들을 개발해왔다. 방수가 가능하게 밀도를 높인 개버딘, 보온이 뛰어나며 가벼운 다크론솜, 땀이 배지않게 통기가 좋으면서 방수가 되는 고어텍스가 그것이다. 전투복에서도 인체 공학적인 체계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머니가 많고 그 위치가 섬세하게 손발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있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중에도 걸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재단, 봉재, 단추 달기에도 치밀한 계산이 요구된다(윤호미, 1996). 군복의 포켓은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소지품을 관리하기 위해 위치, 형태, 크기 등이 다양하게 디자인 되었다. 특히 패치포켓은 활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수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19세기 말 화기의 발달에 따라 숨어서 공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장색과 위장무늬가 생겨나게 되며 위장전투복은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색상, 소재, 무늬, 적외선 반사율 등 무기체제와 더불어

어 첨단 과학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전투복 이외에도 트렌치코트(trench coat), 짧은 야전재킷(field jacket)등 기능적인 목적으로 디자인된 많은 군복아이템이 있다.

군복뿐 아니라 스포츠선수단 유니폼에서도 기능성은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당시 각 스포츠웨어 메이커들은 첨단소재를 통한 '초경량' 유니폼을 선보였다. 이 소재는 '흡수와 건조'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며 그만큼 가벼운 몸놀림을 유도했다(권영일, 2002). 이와 같이 유니폼은 특수한 직업역할수행을 위한 기능적 요인은 물론, 장시간 착용하고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인체의 동적인 형태변화도 고려해 실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유니폼은 착용자의 신체적, 개인적 요건을 바탕으로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작업자의 작업능률향상과 작업에서 오는 육체적인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경희, 1991). 유니폼 소재는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기능적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구성과 세탁성이 우수한 실용적인 혼방제품이 선호된다. 이러한 유니폼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단순성을 수반한다.

2) 단순성

일반적으로 유니폼은 활동에 편리하고 작업에 적합하며 디자인의 표준화와 장식의 제거로 인해 대량생산이 용이한 단순한 형태의 기성복이다.

작업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밈에 필요한 지퍼나 버튼, 포켓 외에는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며 은행여직원 유니폼의 초기 스모크형태도 가운데형의 덧옷개념으로 주로 작업성과 집단의 일체성이 표현된 가장 단순화된 형태이다.

20세기 초 전쟁기간 동안 많은 의류제조업체와 공장들이 규격화된 군복생산을 위해 전환되었고, 혁신적인 기술도입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기계기술의 혁신은 복식에 있어 대량생산 체제로의 이행을 가져왔으며, 기계주의생산에 적합하도록 외형적 측면에서 더욱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복의 단순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에 따라 직업복에도 적용되었고 활동에 편리하고 착용목적에 적합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를 수반하였다.

오늘날 유니폼은 다양한 업종을 통해 일종의 유형화된 디자인과 스타일을 볼 수 있다. 특히 직업복에 있어서 호텔 도어맨에서부터 백화점 안내원복, 화장품 판매원복, 여승무원복, 은행 여직원복까지 색상과 디테일은 차이가 있으나 형태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수트(suit)형이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니폼의 기본 형태는 기능적이고 단순화된 남성 수트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남성의 수트는 상하분리형 의복의 조합으로 인체의

선에 따라 어깨와 허리가 꼭 맞는 스타일이며 활동성과 기능성을 추구한 단순화된 형태였다. 19세기 사회에서 비중있는 지위에 있는 남자들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수트를 입었으며 이러한 남성수트는 여성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테일러드 수트는 착용하기 편하고 원피스 드레스보다 기능적이었으므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화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갔다.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복식은 남성의 비즈니스 수트와 군복의 형태에서

<표 1> 유니폼의 조형성

구분	상징적 의미	외적 형식	대표 복식		
내적 의미	권위성	지위영향력	형태인지적 실루엣-가운 사각모 겹정색	학위예복	
		예식, 격식	직선적인 수트 구두, 장갑, 모자 겹정, 흰색	서양예복	
		힘, 계급, 지위	정형화된 수트 장식-견장, 훈장, 금장버튼, 에플렛	군복, 경찰복	
		전문직업	가운, 흰색	의료인복	
	차별/구속성	지위, 계급	직선적 라인의 정형화된 수트 장식-견장, 모자, 뱃지	군복, 경찰복	
		기업이미지	기업C.I.색상, 로고마크, - 단추, 리본, 스카프	백화점 판매원복 항공사 승무원복 호텔유니폼 은행여직원복	
		신분, 단체이미지	단체 로고-색상 넥카치프, 양말, 모자, 군장, 벨트	스카우트복, 운동복	
		신분	학교 로고 단순화된 수트	교복	
		전문지식 위생과 청결	흰색, 직선적 형태 - 머리수건	의료인복	
	신뢰성	안전, 보호, 봉사	정형화된 형태, 특수장비	경찰복, 군복	
		전문지식, 위생과 청결	흰색, 직선적 형태 캡, 흰색 가운	의료인복	
	심미성	세련미 서비스의 이미지	활동적인 수트, 유행스타일 반영	백화점 판매원복 항공사 여승무원복 호텔 유니폼 은행여직원복	
	외적 특성	실용적기능성/ 단순성	특수업무에 적합	특수 기능성 소재 특수효과-위장색상, 위장무늬 트렌치코트, 야전잠바, 해군수부복	군복
			활동성이 용이함, 남성적 이미지	3피스 수트	사무복 백화점 판매원복 은행여직원복 교복
			움직임이 편함 특수작업에 따른 기능성 보완	Box 형태-덩그리, 오버롤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 (데님...)	작업복
			활동성	단순화된 디자인-숏팬츠	운동선수복

정제된 '수트'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인간이 가장 활동하기 편하고 단순화된 기능적인 모습이자, 유니폼의 정형화된 특징적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니폼의 조형성의 표현적 요소는 <표 1>과 같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니폼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유니폼의 상징적인 의미체계 즉, 내적 의미와 외적 특성을 분석하여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興平志江의 유니폼 분류를 중심으로, 대표적 유니폼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유니폼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을 알아보고 복종에 따른 디자인의 요소 별 그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의미로는 권위성, 차별성, 구속성, 신뢰성, 심미성으로 나타났다.

권위성은 예복에서 격식과 예의를 상징하는 색상과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다양한 직업복 중 군복은 정형화된 형태로서 권위성을 나타내었다. 차별성은 대외적인 표시로서 나타나며 구속성은 직원간의 대내적인 동질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별성과 구속성은 군복이나 경찰복에서는 정형화된 형태나 장식을 통해서 나타나며 회사나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C.I 색상, 로고마크 등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표현된다. 그밖에도 교복이나 의료인복등도 신분을 상징하는 형태로서 차별성과 구속성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신뢰성은 전문지식인을 나타내는 의료인과 시민의 안정과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복, 군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심미성은 호텔, 항공사승무원복과 은행여직원복 등의 서비스직에서 시대적 유행을 반영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유니폼의 내적 의미는 조직내의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권위성, 조직원·비조직원의 구분과 소속단체의 문화·이념 표현을 함으로써 타조직과의 구별을 나타내는 차별성, 착용자에게는 조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통제력을 발휘하는 구속성, 업무에 따른 적절한 의복 형태와 절제된 자기표현을 통해 고개으로부터 얻게 되는 신뢰성, 나아가 미적 추구의 형태로서 시대성을 나타내는 심미성의 개념으로 분석된다.

둘째, 유니폼의 외적 형식은 실용적 기능성과 단순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실용적 기능성과 단순성은 특수기능에 적합한 소

제나 색상, 형태 등을 갖춘 군복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무복, 백화점 판매원복과 교복 등의 복종에 있어서 활동에 용이한 '수트' 형태로 나타난다. 작업복은 움직임이 편하고 단순하여 활동에 편리한 형태를 갖추며, 운동선수복은 단순화된 기능적 디자인으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니폼은 실용성을 내포한 기능성과 단순화된 디자인의 외적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는 직장 여성복에 있어 단순화된 '수트'의 정제된 유형으로 나타나며 활동적이고 전문화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사회가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직종이 생겨남에 따라 일하는 의복으로서의 유니폼의 기능은 그 의미가 더욱 중요시되며 기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한된 조직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조화로운 개성을 함께 연출하는 유니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양한 모습의 유니폼 개발도 가속화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복. (2002).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2, 9.10,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박현주. (2000). 밀리터리룩에 의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영일. (2002, 5. 17). 2002 월드컵 유니폼 '첨단기술경쟁' 끝이 없다. *헤럴드 경제*.
- 김원준. (1988). *화장품 회사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영. (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 (1997). 유니폼 실태 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21(2), 456
- 백화점의 역사. (2002).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2, 9. 10,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보이스카우트의 역사. (2002).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2, 9.10,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손강숙. (1988). *백화점 판매여사원의 유니폼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백화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희. (1991). *직업인의 유니폼 선호도에 관한 연구 -부산 시내 은행원 유니폼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서희. (1989). *우리나라 전통음식점 유니폼에 관한 연구*.

-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신영. (2002).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 연구 -아시아나 항공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희선, 김숙희. (2001). *재미있는 색 이야기*. 교학연구사.
- 奥平志つ江. (1999). *일본의 의생활과 사회*. 임승희 옮김. 서울: 경춘사.
- 윤호미. (1996, 3. 8). *디자이너 역사를 바꾼다*. *조선일보*.
- 장문호. (1979). *복식미학*. 세운문화사.
- 정수현. (2001). *20세기 여성 수트(Suit)의 변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2강 32색 유니폼-국기보다 강력한 '국가의 상징'. (2002, 5. 9). *조선일보*, 35.
- Baron, R. A. & Libert, R. M. (1971). *Human Social behavior*. Homewood, III: The Dorsey press.
- Ewing, E. (1975). *Women in uniform*.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Totowa.
- Flugel, J. C. (1966).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 Horn, M. J. & Gurel, L. M. (1988). *제 2의 피부*. 이화연 외 옮김. 서울: 까치.
- Hurlock, E. B. (1973).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Tokyo,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McGraw-Hill Kogakusha.
- Joseph, N. (1986). *Uniforms and Nonuniforms: Communication Through Clothing*.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Kidwell, C. B. & Steele, V. (1989).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Smithsonian Institution*.
- Langer, L. (1965). *Clothes and Government in Roach*. M.E. and Eicher, J.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sons.
- Molloy, J. T. (1978).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books.
- NUC · 日本ユニフォームセンター. (1993, 1). *金融機関とともに歩む制服の歴史*.
- NUC · 日本ユニフォームセンター. (1998). *The Uniform*.
- NUC · 財団法人 日本ユニフォームセンター. (1991). *ざゆにふお-む-フ アツシヨndeザインの原点*. 東京: 源流社.
- Rubinstein, R. P. (2001). *Dress Codes -Meanings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Westview Press.
- Russell, D. A. (1981). *Costume History and Style*.